2026-03-20-금요일 치유메시지

말씀제목: 형통의 세가지 조건
말씀구절: 여호수아1:1-9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들어가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 세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 잘 아는 본문이고 중요한 본문이다.
표현되있는것이 정확하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표현되있다.

서론
1.근본문제 - 하나님떠남, 죄, 사단문제가 우리의 근본문제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방법은 하나뿐이다.
2.언약뿐이다. - 말씀안에 있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다른것도 많은 약속이 있지만 성경전체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다. 이 안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들어있다. 그중에서 창3:15절이다. 스토리가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씀안에 언약이 있다.

3.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근본문제를 해결 할수 있다. 해결하는 정도가 근본문제를 정복해버린다. 참 놀랍다. 근본문제가 힘을 못쓴다. 이제 한주마다 계속 강단 말씀이 나온다. 그 주간에 근본문제 정복이다. 오늘 핵심 메시지에서도 나왔다.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고 있으면 각인 뿌리 체질된것은 힘을 못쓴다. 체험한 내용을 말을 했을것이다. 그러니 망대 여정 이정표는 망대 안에 있는 약속들이다. 그래서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이 된것이다. 정복한것이다. 근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답은 한개뿐 언약이다. 그 언약이 역사하게 하는 나의 말슴이 있으면 정복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다.

오늘 읽은대로 형통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다. 7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네가 평탄케되고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세가지를 이야기 했다.

본론
1.주야로 묵상(8절)
1)이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을 늘 입에 달고 있으라는 소리이다.
2)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했다. 과거에는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나 생각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지키지?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었다. 복음을 조금 깨달으면서 알게 되었다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게 아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제일 잘지키겠는가? 그것은 아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고 안지키고간에 정복하게 되는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것이 그리 중요한것이다 .복음을 알고 나면 율법이 하나도 부담이 안된다.
3)수1: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상숭배하지 말고 오직 수가 어거기로 가라는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마음만 잡히면 이게 어려운일이 전혀 아니다. 마음이 안 잡히면 평생가도 한번도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터이다. 오늘 진짜 여기에 깊은 답 나기를 바란다.
4)시1:2 꼭 같은 말씀이 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에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2.가나안땅이다.
1)수1:2너는 일어나서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가라
2)수1:3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모두 네게 주셨다. 거기로 들어가면. 그러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럼 안간다고 하는게 아니고 가면 네를 형통케 할것이다. 안갈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가야 하기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복시키신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안갈려고 하는 사람처럼 내마음에도 그런것이 있을것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하튼 가면...
3)더 중요한것은 가나안땅 가는것이 내 안에 언약이 되있으면, 내가 가는 행위보다도 이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통하여 있으면,,, 이것이 내게 망대가 되어져 버리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100%되버리면 절대망대가 된것이다. 인생 못말리게 된다. 형통, 소통 그정도가 아니다.
4절, 그땅을 얼마나 크게 할것인가 가나안, 광야, 해지는쪽 대해까지 ... 대해, 지중해이다. 유프라테스강은 아주 멀리있다.
4)광야에 대하여 기록을 아주 많이 했다. - 정복한 조건 두가지, 그게 첫째는 약속의 피. 유월절 그날 저녁에 발랐던 어린양의 피가 근본조건이다. 두번째는 가나안땅 걸어가는것이다. 지금도

조건은 똑같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 언약이 딱 되어야 한다. 자꾸 생각하고 누리고 있다가 내 안에 망대가 되면 인생정복한다. 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3.함께 간다고 하셨다. - 중요한 말씀 많이 했다.
1)수1: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당할자 없게 하신다.
2)평생 승리, 정복하게 하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것 봤지 그렇게 한다.
3)수1:6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하지말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하나님이 하게 할것이라는 말씀, 함께 하신다는것이다.
4)수1:9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것이다. 이러면 자동으로 형통되는것이다. 마음에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언약되기를 바란다.
말씀이 들어와 내게 언약이 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잘 안되어진다. 은혜는 받지만 행동으로 옮기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중요한 이유또하나 그게 지속이다. 말씀들어오면 잊지 않고 지속한다. 이런 말씀이 딱 들어와야 한다. 그게 나의 말씀이다. 이것이 말씀이 내게 나의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떤 말씀이든지 나의근본문제 해결하고 사단 힘못쓴다. 불신앙 이런거 힘 못쓴다. 불신앙 한번도 안 일어난다는것 절대 아니다. 만일 그게 느끼게에 절대 망대라하면 불신앙 거의 안생긴다. 이것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고 언약이 되있으면 불신앙 일어나도 즉시 무너진다. 성도 여러분 답은 이거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답이다. 이것이 들어와서 내게 언약이 되면 자동으로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게 777이다. 사람마다 들어온 사명이 다르기에 말씀이 다르고 기도도 다르다.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내 기도제목이 되는것이다. 내게 들어온 말씀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다는것은 내 기도를 계속 하는것이다.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안맞고 늘 내기도만 하고 있을 수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언약자체를 몰랐기에 늘 하는기도가 이런 기도였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랬다 말씀을 받는 다는 개념이 없었다. 말씀안다, 이런것 있었지... 말씀에 은혜받는다 이런거 있었지... 아침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받겠다는 개념은 한번도 가진적이 없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런 개념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인데 우리는 맨날 말씀을 받으라고 하잖은가? 평생에 나의 말씀 언약이 자리를 잡으면 이제 진짜 준비된것이다.

잊지 말로 인생 형통의 세가지 조건,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수시로 해라는 말이다.
내가 이땅에서 하고 싶은거 잊어버리지 말라 / 네 마음이 여기에 꽂히면 네가 광야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 해결한다.
네 혼자서는 절대 안되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것이다.

결론
1.말씀중심으로 살아라. 저는 집사때 오해를 했다. 자기는 목사니까 ...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말씀없으면, 조금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도가 자기것이 된다. 자기기도를 늘 하는것이다. 하나님으로 부터 나를 통해서부터 뭘 할것이다가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예 그게 없는데 기도를 해야 하니까 나쁜것은 아닌데 하나님하고는.... 별로 안통할수 있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기도하다보면 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그래도 성경에 있는것 같이 흉내라도 내려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2.어덯게 하면 이렇게 되는가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받으면된다. - 가나안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한다. 이거 없으면 지 마음대로 사는것이다. 말씀도 사명도 없다면 기도도 사는것도 자기 맘대로 살고 있다고 보면된다. 그래도 죽지는 않는다 지옥도 안가고 그러나 성경적인 전도는 할수 없다는것이다. 정말로 기도해보시기를 바란다. 때로는 잘 안되서 발버둥 치고 저도 그랬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하튼 가슴에 들어오고 통해야 한다. 통해지만 그 즉시로 많은것을 정복 할수 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것을 체험하게 된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란다. 정말로

3.깊은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 인생 깊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고 마음에 언약으로 담기를 바란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가슴이 통한자가 되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예배 온 모든 성도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icsc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